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동향 분석

김안나^{1,2}, 송미영¹, 배순희¹, 김 칠¹, 김하영¹, 김영식², 박경범², 김홍준²

¹한국한의학연구원 정보연구센터, ²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ABSTRACT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An-Na Kim^{1,2}, Mi-Young Song¹, Sun-Hee Bae¹, Chul Kim¹, Ha-Young Kim¹,
Young-Sik Kim², Kyoung-Bum Park², Hong-Jun Kim²

¹Information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²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Woosuk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reviews the recent trend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research. The data examined are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from 1990 to 2009.

Method : The data are retrieved through the internet database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and the collec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The number of articles examined is 385, published in 25 volumes of the journal.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 articles, research methods, subjects, and author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re sorted out by the OASIS key words for the articles published before 1999, and by key word indexes cited in the abstracts for the articles published sinceafter.

-
- 교신저자 : 김홍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학교실
 - Tel : 063-290-1131 Fax : 063-290-1131 E-mail : kimboncho@woosuk.ac.kr
 - 접수 : 2010/ 06/ 03 수정 : 2010/ 06/ 15 채택 : 2010/ 06/ 21

Results : Among the 385 articles collected, 206 are research articles, 143 philological articles, 35 case studies, and 1 special contribution. A majority of research articles are experimental studies (199 articles or 96.6%), while clinical reports (5 articles or 2.43%), and others studies (2 articles) occupy a small portion.

Most of experimental studies (183 articles or 91%)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prescriptions or treatments. Among the effectiveness studies, 114 articles (62.3%) employ *in vivo* experiment design, 52 articles (28.42%) *in vitro* experiments, and 17 articles (9.29%) both *in vivo* and *in vitro* experiments. In terms of research subject, the most frequently indexed key words are hepatotoxicity among diseases (9 articles), Bojungikgitang (Bu-Zhong-Yi-Qi-Tang) among prescriptions (10 articles), Buja (Acontii Tuber) among meteria medica (4 articles), immunity and anti-oxidation among efficacy terminology (6 articles each), and Donguibogam(東醫寶鑑) among references in the key words (25 articles).

Universities are the main affiliation of authors (76.42%), followed by university hospitals (6.71%), non-academic research institutes (5.55%), local clinics (4.67), academic research institutes (2.81%), hospitals (2.38%), and others (1.44%). The most affiliated institute of the first and correspondent authors is Wonkwang University. In terms of authorship, co-authorship outnumbers sole-authorship by 82.08% to 17.92%. The proportion of authors of a single article is 63.54% which is near the author productivity distribution described by Lotka's law.

Key word : Statistics of articles,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OASIS

1. 서 론

침구 치료와 더불어 방제는 한의학에서 중요한 치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양의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만성질환 및 면역 관련 질환들은 대체의학으로의 관심을 촉발하게 하였으며, 최소한 2000년 이상 동물실험이 아닌 인간의 질병을 실제로 치료하면서 전해 온 소중한 방제학적 자료에 대한 연구는¹⁾ 인체의 正氣를 중요시하는 한의

학적 치료개념과 맞물려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즉, 한의학 전통의 방제원리를 이해하여 역대 기성방들을 재평가하고 그 효능 및 새로운 응용법을 발굴하여 우수한 치료제로 재개발하는 연구, 방제의 현대적인 재해석 연구, 제형·보관·용법 연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실험 연구 등 방제학의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대두되고 있다²⁾.

논문이란 한 학자가 한 과제를 설정하고 상당

한 시일에 걸쳐 연구에 종사하여 얻은바 새로운 사실을 학계에 공표하려고 집필한 글이므로, 논문을 통하여 특정학문의 시대 흐름에 따른 연구 경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고, 또한 향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데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³⁾. 이런 관점에서 방제학 연구분야의 논문을 분석하는 것은 방제학 연구의 동향 파악을 비롯하여 연구 활동의 개선점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한의학회지학회지는 한의방제학 전문학회지로서 1990년 12월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1992년까지 3년간 매년 1회 발간되다가 중단되었다. 1996년 10월 제 4권이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여 매년 1회, 2002년부터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증간된 이후 매년 2회씩 발간해 오면서 매년 평균 30편 이상의 논문 발표를 해왔다. 학회지 구성도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꾸준한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한의 방제학 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방제학 연구의 동향 파악을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회지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1990년 창간호부터 2009년도까지 게재된 모든 대한한의학회지학회지의 논문에 대하여 논문형태, 연구방법, 연구주제 및 저자 분석을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수집방법

1990년 창간호부터 2009년 17권 2호까지 발간된 대한한의학회지학회지 총 25권에 게재된 논문 총 385편을 대상으로 시기분석을 수행하였다.

논문 및 한글한자키워드 수집은 한의학분야 국내 유일한 전통의학정보포털사이트 오아시스³⁾를 주된 검색 및 자료 수집 사이트로 활용하고, 오아

시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2009년 17권 2호 자료 및 기타 세부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발간된 학회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신뢰도를 위해 오아시스에서 검색·수집한 자료 및 수작업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대한한의학회지학회지 발간본과의 전체 대조작업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총 385편의 논문에 대하여 논문형태, 연구방법, 연구주제, 저자인적사항 및 저자생산성 등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1) 논문형태 분석은 원저, 종설, 증례, 기타(특별기고 등)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 내용분석에 따른 분류를 하였으며, 2002년 이후 부터는 학회지에 게재된 분류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분석은 1)에서 분석한 원저논문을 먼저 실험연구와 임상연구로 구분하고, 원저논문의 다수를 차지하는 실험연구에 대하여 효능실험연구의 경우 in vivo·in vitro·in vivo와 in vitro 이 혼용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3) 연구주제 분석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1990년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는 논문에 키워드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오아시스에서 제공하는 한글한자키워드를 기반으로 관련병증, 본초, 처방, 효능 등의 주제 분석을 하였다. 2000년 이후 발간 호에 대해서는 영문키워드를 기반으로 한글키워드로 1차 번역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오아시스키워드와 동일하게 주제 분석을 하였다.

키워드에 대해서는 분석 전, 일부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같은 단어가 한글과 한자로 각각 표현된 경우 동일단어로 처리하였다(예: 보중익기탕과 補中益氣湯, 동의보감과 東醫寶鑑 등). 또, 유사의미의 경우 약간의 수정을 거쳐 동일키워드로의 처리 정제를 하였다(예: 혈액순환촉진과 혈액순환향상, 중풍과 뇌졸중 등). 또 본초단

방연구가 아니더라도, 처방에 가감하여 사용한 본초가 키워드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키워드 분석 시 본초용어에 포함시켰다.

4) 저자 분석은 수집된 논문의 저자 인적사항을 분석하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에 게재논문 저자에 대한 단독저자/공동저자 비율, 저자생산성 조사, 교신저자 및 소속기관의 경향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III. 결 과

1. 논문형태 및 연구방법 분석

수집된 총 385편의 논문 형태는 원저논문 206

편, 종설논문 143편, 증례논문 35편, 특별기고 1편으로 분류되었다.

원저논문의 경우 실험논문이 199편으로 원저논문의 96.6%, 임상논문이 5편으로 2.43%를 차지했으며, 기타 2편이었다(Table 1). 실험논문은 크게 효능실험연구 183편(91%)과 비 효능실험논문 16건(19%)으로 분류되었는데 효능실험의 경우 in vivo 실험이 114편, in vitro 실험이 52편, in vivo와 in vitro가 혼용된 실험이 17편으로 in vivo 실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 효능실험논문의 경우에는 생리활성실험 4편, 성분분석 3편, 품질기준과 포제 3편, 내·외부형태 분석 1편, 기타연구 5편이었다(Fig. 1).

Table 1. 연도별 논문형태 분포

논문형태	'90	'91	'92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원저_실험	9	4	4	7	5	7	7	13	10	23	17	16	17	12	12	18	18	199
원저_임상				1								1				1	2	5
원저_기타		1	1															2
종설	7	7	5	2	9	8	8	5	7	9	11	11	7	9	16	11	11	143
증례	1							1	3	1	2	4	4	5	5	4	5	35
특별기고														1				1
합계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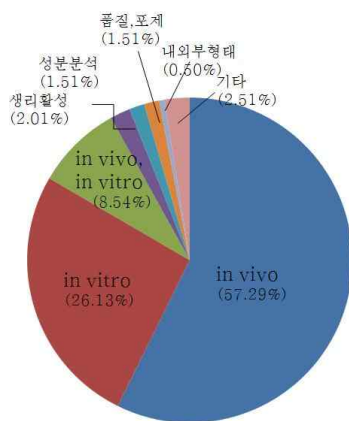


Fig. 1. 실험연구의 연구분야 비율

2. 연구주제 분석

총 385편 논문의 키워드 1089개는 병증(140개), 처방명(168개), 본초명(161개), 효능(62개), 서적(42개), 기타(516개)로 분류되었다.

다빈도 상위 5개 병증 키워드는 간독성, 당뇨, 천식, 뇌졸중, 아토피 순이었다(Table 2). 병증별 실험논문과 종설논문의 분포는 Fig. 2와 같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병증은 간독성이었고, 종설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병증은 뇌졸중이었다(Table 3).

Table 2. 연도별 다빈도 병증 분포

다빈도병증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간독성			1		1	1	1	2			1	2	9
당뇨				2	1	2			2	1			8
천식			1	1		1		1		2			6
뇌졸중	1					3				1			5
아토피										2		2	4
비만					1			1			1		3
염증										1	2		3
위암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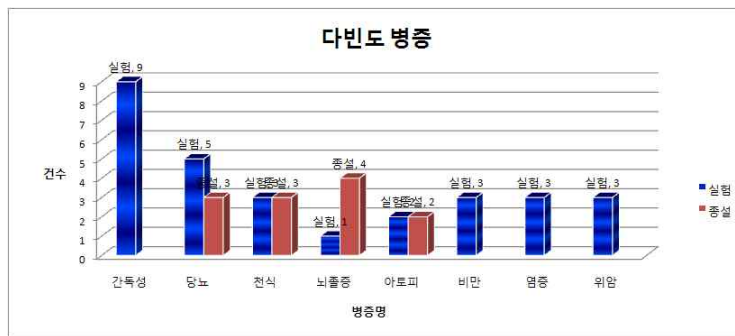


Fig. 2. 논문형태별 다빈도 병증 분포

Table 3. 논문형태별 연도별 다빈도 병증 분포

논문형태	병증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실험논문	간독성			1		1	1	1	2			1	2	9
	당뇨				2	1				2				5
	비만					1			1			1		3
	염증										1	2		3
	위암								3					3
총설논문	천식			1	1				1					3
	뇌졸중	1					3							4
	당뇨						2				1			3
	천식						1				2			3

다빈도 상위 5개 처방명 키워드는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사군자탕, 황련해독탕, 정천화담강기탕 순이었다(Table 4). 처방별 실험논문과 총설논

문의 분포는 Fig. 3과 같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처방은 보중익기탕이, 총설논문 역시 최다빈도 처방은 보중익기탕이었다(Table 5).

Table 4. 연도별 다빈도 처방 분포

다빈도 처방	'90	'91	'92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보중익기탕	1	3							1		1	1		1		1	1	10
십전대보탕		1		1												4		6
사군자탕	1	1							1		2							5
황련해독탕										1		1			2	1		5
정친화담강기탕								1	2						1			4
사물탕		1				1									1			3
이묘산														1	1		1	3
작약감초탕							1			1	1							3
지폐산										1	1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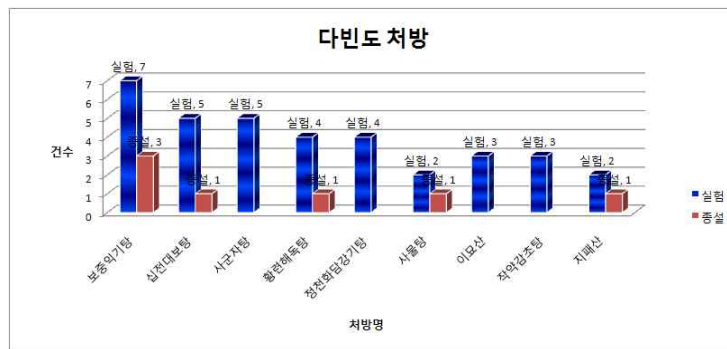


Fig. 3. 논문형태별 다빈도 처방 분포

Table 5. 논문형태별 연도별 다빈도 처방 분포

논문형태	처방	'90	'91	'92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실험논문	보중익기탕		1	2						1		1	1		1				7
	사군자탕		1	1							1		2						5
	십전대보탕		1															4	5
	정친화담강기탕									1	2						1		4
	황련해독탕											1	1			1	1		4
	이묘산														1	1		1	3
	작약감초탕								1			1	1						3
중설논문	보중익기탕			1													1	1	3

최다빈도 본초명 키워드는 부자였으며 그 뒤로 갈근외 9개 본초가 각 3번씩 수록빈도가 같았다 (Table 6). 본초별 실험논문과 중설논문의 분포는

Fig. 4와 같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본초는 음양곽이었으며, 중설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본초는 부자였다(Table 7).

Table 6. 연도별 다빈도 본초 분포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부자								1	3					4
갈근						1	1						1	3
대조		1	1							1				3
마황									1			2		3
백지						1					1	1		3
석고							2				1			3
승마	1					1							1	3
오미자									1			1	1	3
음양곽			1	1					1					3
행인		1					1	1						3
황금						1						2		3



Fig. 4. 논문형태별 다빈도 본초 분포

Table 7. 논문형태별 연도별 다빈도 본초 분포

논문형태	다빈도본초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실험논문	음양곽			1		1				1					3
종설논문	부자								1	3					4
	대조		1	1							1				3
	석고							2				1			3
	승마	1						1						1	3

다빈도 상위 5개 효능 키워드는 면역, 항산화, 라디칼 제거 효과, 항염증효과, 혈액순환향상 순이었다(Table 8). 효능별 실험논문과 종설논문의 분포는 Fig. 5와 같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효

능 키워드는 항산화이었고, 종설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효능 키워드는 혈액순환향상이었다(Table 9).

서적 키워드는 총 42개 중 동의보감이 25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방약합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1번 수록되었다. 종설논문의 최다 빈도 서적은 동의보감이었고 실험논문에는 서적 키워드가 없었다 (Fig. 6).

기타 용어의 다빈도 순위는 방제, 아세트아미노펜, 세포자멸사, LPS 등의 순이었다(Fig. 7).

Table 8. 연도별 다빈도 효능 분포

다빈도 효능	'90	'98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면역	2	2		1								1			6
항산화						1		1		1			1	2	6
라디칼제거효과									2	1			1		4
항염증효과												1	1	1	3
혈액순환향상								1	1					1	3
간보호										1			1		2
생식											1		1		2
울혈제거								1	1						2
진통	1							1							2
체중조절효과							1							1	2
항암효과									2						2
항우울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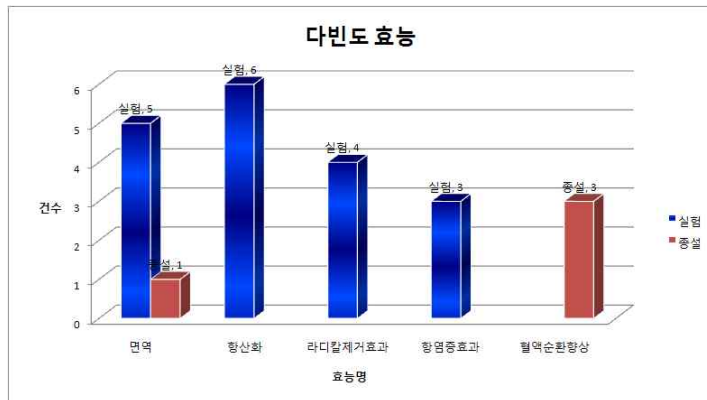


Fig. 5. 논문형태별 다빈도 효능 분포

Table 9. 논문형태별 연도별 다빈도 효능 분포

논문형태	효능	'90	'91	'92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
실험논문	항산화									1		1		1			1	2	6
	면역		2			2		1											5
	라디칼제거효과												2	1			1		4
	항염증효과															1	1	1	3
종설논문	혈액순환향상											1	1					1	3
	울혈제거											1	1						2

다빈도 서적



Fig. 6. 논문형태별 다빈도 서적 분포

다빈도 기타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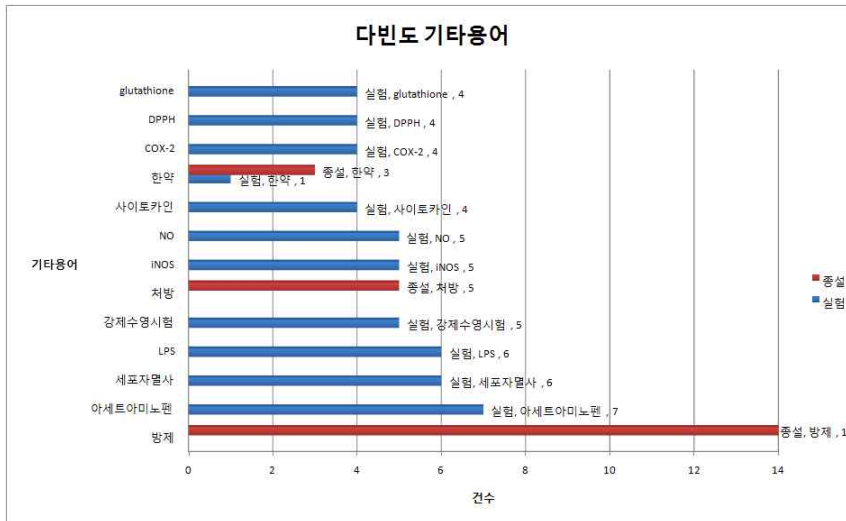


Fig. 7. 논문형태별 다빈도 기타용어 분포

3. 논문저자 분석

1저자로 논문편수 게재 상위 5인은 윤용갑, 박선동, 서부일, 장선일, 국윤범 순으로 나타났다. 1저자 소속 상위5개 기관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

학,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순이었다(Table 10, 11).

Table 10. 1저자별 게재 논문편수

논문편수	1저자
11	윤용갑
8	박선동
7	서부일
6	장선일, 국윤범
5	강혜영
4	이장천, 노영범, 김상찬, 강순수
3	황기명, 임대환, 이은숙, 이선동, 이상현, 오명숙, 변성희, 박필상, 민용태, 마진열
2	홍석, 한종현, 최해윤, 조운성, 조용국, 정현우, 정양삼, 장문석, 임창경, 임영환, 이진아, 이은, 이윤희, 이용운, 이영우, 이기옥, 유형천, 유진덕, 양유인, 양기호, 신민규, 성현제, 박종찬, 박양구, 박승택, 박세원, 김홍삼, 김관준, 김정훈, 김은주, 김윤경, 김영일, 김영균, 김도희, 김경수, 강성용, 강래엽
1	rongjiezhao, JoMijeong, JangSeonil, 황희정, 황현택, 황치환, 황연규, 황대선, 황경택, 홍지선, 홍윤표, 홍승현, 허일진, 한효정, 한현희, 한결, 최환수, 최혜민, 최창원, 최창민, 최정현, 최재우, 최용선, 최성환, 최병진, 최미은, 최규호, 총배금, 차창민, 차종태, 진종식, 주재홍, 조용걸, 조성희, 조동희, 조대연, 조내진, 조국령, 정지예, 정종안, 정종길, 정은우, 정옥삼, 정승일, 정민영, 전호철, 전지영, 전원경, 전영균, 전경혜, 장형근, 장영희, 장문원, 장경선, 임동석, 이훈규, 이화정, 이항숙, 이태희, 이치웅, 이채중, 이주일, 이주영, 이종형, 이재은, 이원욱, 이용숙, 이영중, 이안구, 이승희, 이승연, 이성준, 이상준, 이상민, 이부균, 이동언, 이덕기, 이남현, 이남규, 이강녕, 윤현정, 윤현자, 윤성찬, 윤철, 유영범, 유승훈, 유승열, 통순, 위준, 원찬욱, 원국동, 왕채하, 오황, 오영택, 염현식, 양응모, 양성완, 안현주, 안태호, 안태형, 안지영, 안수진, 안선준, 안상훈, 안상현, 안상영, 안봉진, 안병태, 안대광, 안건상, 심은영, 신정식, 신재용, 신영일, 신동근, 신대회, 영광식, 송효원, 송호상, 송정방, 송영은, 송봉근, 송미선, 성영석, 성만준, 성강경, 설재욱, 서철훈, 서창우, 서창섭, 서장우, 서인교, 서운교, 백일성, 백용주, 배철호, 박혜선, 박형배, 박태열, 박철수, 박찬혁, 박찬기, 박지현, 박주연, 박종흠, 박종호, 박용호, 박수현, 박성민, 박상무, 박상남, 박민정, 민남기, 문한주, 문진영, 문연자, 문미현, 맹화섭, 마충제, 류일환, 도은주, 노진구, 노의준, 노운섭, 남용재, 남녀정, 남극성, 나호정, 나웅인, 김희철, 김훈, 김혜윤, 김혜성, 김형환, 김형진, 김형률, 김현준, 김현식, 김행진, 김한균, 김태기, 김창현, 김창민, 김찬웅, 김진택, 김진택, 김종현, 김종대, 김재현, 김은희, 김은정, 김용호, 김용성, 김영복, 김성준, 김성주, 김성자, 김선희, 김선모, 김봉현, 김복해, 김방울, 김민산, 김동우, 김대성, 김기형, 김규민, 김광겸, 김건진, 권현범, 권용욱, 권영규, 곽정진, 고원도, 고동균, 강준혁, 강영건, 강성현, 강성도, 강병구

Table 11. 1저자 소속기관별 논문편수

논문편수	1 저자 소속기관
71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45	대구한의대학교한의과대학
40	동신대학교한의과대학
34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21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
19	경원대학교한의과대학
11	동의대학교한의과대학, 원광대학교약학대학, 한국한의학연구원
8	원광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6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4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우석대학교한의과대학, 홍익한의원
3	국립의료원한방진료부, 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전주대학교대체의학대학
2	갑자원 한의원 2, 대전대학교부속대전한방병원,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순천대학교한약자원학과및한의약연구소, 원광대학교한약학과, 임상경한의원, 하버드대학교의과대학
1	(재)테크노파크한방산업지원센터임상시험지원팀, 갑자원 한의원 1, 경동한의원, 경인한의원, 경희대학교동서의학대학원, 고려대학교한방병원, 고려한방병원, 광동한방병원, 광안한의원, 광주원화당한의원, 군산대창한의원, 군산락강한의원, 꽃마을한방병원, 대구한의대신계내과교실, 대구한의대학교비계내과학교실, 대구한의대학교생명자원공학부, 대구한의대학교제한동의학술원, 대구한의대학교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대구한의대학교BK21한방신약개발연구팀, 도야마대학화한약연구소, 동서한의원, 동신대학교침구과교실, 동의대학교한의학연구소및한의과대학방제학교실, 맹화섭한의원, 명신한의원, 민제한의원, 부천성유당중국한의원, 부천한의원, 샘물한의원, 서울한라한방병원,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서울향료연구소, 성심한의원, 성인천한의원, 성제한의원, 세명대학교한의과대학, 세종한의원, 신동근한의원, 안세한의원, 연변대학교의과대학, 염한의원, 원광한의원(전남영암),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부속광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부속한방병원, 원광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원광대학교약학대학한약학과, 원광대학교의약자원연구센터,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광대학교한약자원연구센터, 이조당한의원, 임뮤노피아연구소, 장영희한의원, 장춘중의학원, 전남원도경희한의원,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제한동의학술원, ㈜휴온스중양연구본부중양연구소, 진안속근약초시험장, 태화당한의원, 한국아토피연구소, 할아버지한의원, 해성한의원, 형상한의원, 홍윤표한의원, MudanjiangMedicalUniversity

교신저자로 10편 이상 게재 상위 5인은 윤용갑, 박선동, 이태희, 강순수, 신순식, 이장천 순이었고, 교신저자 소속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대구한의대학교한의과대학, 동신대학교한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 순으로 1저자 소속기관 결과와 순위가 같았다(Table 12, 13).

전체 저자의 소속기관은 총 1387개 중 학교가

1060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학교 부속병원, 학교외 연구소, 개인한의원, 학교 연구소, 학교의 병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4).

저자 생산성 분석을 위해 단독저자 및 공동저자별 논문편수와 게재논문 385편에 대하여 공동저자를 포함한 1320명의 저자들의 분포에 대한 결과는 Table 15, 16과 같다.

Table 12. 교신저자별 게재 논문편수

논문편수	교신저자
39	윤용갑
18	박선동
14	이태희
13	강순수
11	신순식
11	이장천
10	국윤범
9	권동렬, 김상찬
8	박성규, 변준석, 신현규

6	서부일
5	김종대, 김희철, 문진영
4	김윤경, 변성희, 우원홍
3	강혜영, 권태오, 김동우, 김선희, 김윤철, 노영범, 문구, 문한주, 박치상, 양승정, 이남구, 이선동, 이연정, 이호섭, 장선일, 지선영, 홍석
2	곽정진, 김미려, 김정상, 김진택, 김희수, 박종철, 박찬기, 서호석, 양기호, 윤여충, 이상관, 이시형, 이종훈, 전상윤, 정종길, 정혁상, 조성희, 조수인, 주영승, 최정화, 최진봉, 한종현
1	강대길, 강병기, 강병수, 강석봉, 강성용, 고건일, 김경수, 김광겸, 김연섭, 김영복, 김영일, 김원채, 김운식, 김인락, 김인상, 김정숙, 김진원, 김판준, 김형균, 김홍삼, 김희영, 남상윤, 노승현, 노재환, 마진열, 맹화섭, 민용태, 박경, 박병림, 박세원, 박창국, 박쾌환, 박혜선, 반혜란, 변준철, 서운교, 서철훈, 성강경, 성현재, 송봉근, 송효원, 신영일, 신재용, 신화석, 안상우, 안태형, 안희덕, 우원기, 원국동, 유도곤, 유심근, 유진덕, 유형천, 윤병국, 윤현자, 이경환, 이극로, 이기옥, 이상현, 이연경, 이영우, 이영중, 이용숙, 이원철, 이인, 이제현, 이종형, 이주희, 이준무, 이향숙, 임규상, 임은미, 장영희, 전병훈, 전봉렬, 정경아, 정동주, 정수미, 정영득, 정종현, 정지천, 정현우, 조영림, 조현경, 조현주, 주수중, 차종태, 최경호, 최병전, 최중백, 최창원, 허억, 허진일, 홍지선, 황기명, 황충연, KimSangchan, sangchankim, YunYounggab

Table 13. 교신저자 소속기관별 논문편수

논문편수	교신저자 소속기관
8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48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38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35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24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20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16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13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11	한국한의학연구원
10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9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4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3	국립의료원한방진료부, 동신대학교부속광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 원광대학교의약자원연구소, 전주대학교대체의학대학
2	갑자원한의원, 대구한의대학교제한동의학술원, 尙志大學校, 소속없이한의학박사라고만됨, 순천대학교한약자원학과및한의약연구소, 원광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진솔한의원, 형상한의원, 흥익한의원
1	건국대학교외과대학, 경동한의원, 광주기독한방병원, 군산라강한의원, 나주부부한의원, 대구한의대학교BK21한방신약개발연구팀, 대전대학교부속, 대전대학교부속대전한방병원, 동서한의원, 동신대학교한의과대학, 동신대학교부인과학교실, 매일유업(주), 맹화섭한의원, 명신한의원, 박쾌환한의원, 부부한의원, 부천성유당중국한의원, 부천한의원, 서울한라한방병원, 성인천한의원, 성제한의원, 세명한의원, 세종한의원, 신북중앙한의원, 아름다운여성한의원, 안세한의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공과대학,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부속광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부속한방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유진덕한의원, 장영희한의원, 전주대학교기초의과학과, 전주대학교아토피건강전문연구소, 한방생명자원연구소, 해성한의원, B&B한의원

Table 14. 전체소속기관별 논문편수

논문편수	전체 저자 소속기관
336	원광대학교
206	대구한의대학교
138	동신대학교
97	동국대학교
60	상지대학교
55	경희대학교
48	동의대학교
45	경원대학교
14	전주대학교
13	우석대학교
6	MudanjiangMedicalUniversity
5	하버드대학교
4	전북대학교
2	건국대학교, 목원대학교, 尙志大學校, 순천대학교, 장춘중의학원, 중국연변대학교의과대학
1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신대학교환경공학과, 마산대학교, 목단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송호대학자연건강관리학과, 송호대학교자연건강관리학과, 순천청암대학, 연변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원싱턴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중앙대학교의과대학,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하버드대의과대학, 호서대학교자연과학대학, yanbianmedicalcollage

Table 15. 단독저자 및 공동저자별 논문편수

	단독저자	2인저자	3인저자	4인저자	5인저자 이상	계
'90	14	0	3	0	0	17
'91	3	6	3	0	0	12
'92	6	4	0	0	0	10
'96	9	1	0	0	0	10
'97	7	5	1	1	0	14
'98	3	7	1	4	0	15
'99	2	6	2	3	2	15
'00	1	8	3	2	5	19
'01	3	7	2	2	6	20
'02	8	6	2	5	12	33
'03	3	12	6	0	9	30
'04	2	5	5	9	11	32
'05	0	6	7	3	12	28
'06	2	9	2	1	13	27
'07	2	5	6	5	15	33
'08	2	6	2	5	19	34
'09	2	8	4	0	22	36
계	69	101	49	40	126	385
비율	17.92	26.23	12.73	10.39	32.73	100

Table 16. 게재논문과 저자 수 분포

논문수	저자수	논문수*저자수	저자수비율	논문수*저자수 비율
1	420	420	63.54	31.82
2	131	262	19.82	19.85
3	41	123	6.2	9.32
4	26	104	3.93	7.88
5	11	55	1.66	4.17
6	7	42	1.059	3.18
7	3	21	0.45	1.59
8	3	24	0.45	1.82
9	3	27	0.45	2.045
10	2	20	0.3	1.52
11	6	66	0.98	5
12	2	24	0.3	1.82
13	1	13	0.15	0.98
14	0	0	0	0
15	1	15	0.15	1.14
16	1	16	0.15	1.21
17	1	17	0.15	1.29
18	0	0	0	0
19	0	0	0	0
20	0	0	0	0
21	0	0	0	0
22	0	0	0	0
23	0	0	0	0
24	0	0	0	0
25	0	0	0	0
26	1	26	0.15	1.97
27	0	0	0	0
28	0	0	0	0
29	0	0	0	0
30	0	0	0	0
31	0	0	0	0
32	0	0	0	0
33	0	0	0	0
34	0	0	0	0
35	0	0	0	0
36	0	0	0	0
37	0	0	0	0
38	0	0	0	0
39	0	0	0	0
40	0	0	0	0

41	0	0	0	0
42	0	0	0	0
43	0	0	0	0
44	0	0	0	0
45	1	45	0.15	3.41
46	0	0	0	0
47	0	0	0	0
계	661	1320	100	100

Table 17. 2008년도 학진 등재 한의학 관련 학회지 목록

2008년도 등재지목록	사이버출판여부	정시 발행	연간발간횟수 (2010 현재)	2007 년도 학술지발간 회수 및 논문편수	학술지 역사	등재후보 선정
대한 약침학회지	-과학기술학회마을 원문서비스 ○ -오아시스에는 서지와 초록만 서비스	○	연 4회	10권1,2,3호 49편	-창간호 발간(1997)	2005년
대한한방 소아과학회지	-홈페이지 ○ (회원만 접근 가능) -과학기술학회마을 원문서비스 ○	○	연 3회	21권1,2,3호 49편	-창간호 발간(1986)	2005년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학회지	-홈페이지 ○ (회원만 접근가능) -과학기술학회마을 원문서비스 ○	○	연 3회	20권1,2,3호 73편	-대한의관과학회지 창간호 발간(1988)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변경(2003) -2005부터 현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로 발간	2005년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홈페이지 ○ (모두 접근가능) -과학기술학회마을 원문서비스 ○	○	연 6회	20권1,2,3,4호 59편	-원전의사학회지 창간호 발간(1987)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로 분리 발간 (2000)	2005년
사상체질 의학회지	-홈페이지 ○ (회원만 접근가능) -과학기술학회마을 원문서비스 ○	○	연 3회	19권1,2,3호 62편	-사상의학회지 창간호 발간(1989) -1999부터 현재 사상체질의학회지로 발간	2005년
한방재활 의학과학회지	-홈페이지 ○ (모두 접근 가능)	○	연 4회	17권1,2,3,4호 63편	-한방물리요법학회지 제1권 발간 (1991)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로 발간 (1996)	2005년

IV. 고 찰

방제는 변증입법의 기초위에 처방의 구성 원칙을 세워 적절한 약물을 선택 배오하고 일정한 제형을 설정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응용하는 일종의 의료 수단이다⁵⁾. 즉, 방제학은 한의학의 기초와 임상으로부터 분화되어 온 학문으로 기초와 임상各科의 지식과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⁶⁾, 침구치료와 더불어 한의학적 치료의 근본이 되는 학문이므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제학의 다양한 연구에 대해 어느 분야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또 어느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더 관심과 발전을 요하는지에 대한 해당분야의 논문 분석은 향후 방제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일 것이다.

1990년 창간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는 2010년 현재 30여년 지속되어온 국내 유일의 방제학 전문학회지이다. 2002년 2회로 증간하기 시작한 제 10권 1,2호 발간 이후 매년 2권씩 꾸준히 발행되어 2009년 12월 기준 제 17권 2호까지 발간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가 총 25권이고 게재된 논문 편수는 총 385편이다. 따라서 방제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의 역사만큼이나 그간의 방제학 연구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의 의의를 높여준다.

이제까지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형태를 보면 원저논문 206편, 종설논문 143편, 증례논문 35편, 특별기고 1편으로 원저논문이 종설논문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편수로 게재되었다. 특히 원저논문의 경우 실험논문만 199편에 달하여 원저논문의 96.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논문의 51.69%에 달하고 있어 방제학회지의 논문의 상당수가 실험 연구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학회지에 게재된 방제 관련 분야의 연구가 방제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기존 한의방제에 대한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실험연구 및 효능 연구, 제형·보관·용법 연구 등에 반수 이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83편으로 실험연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효능실험연구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 추세인데, 2000여년 이상 축적된 경험방으로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약했던 한의방제에 대해 실험연구를 통한 객관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효능연구는 병증에 대한 방제나 본초의 효능을 *in vivo*나 *in vitro* 실험 연구를 통해 과학적, 객관적인 실험데이터 기반 효능 근거를 획득하고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 한의처방의 임상효용성 분야이므로, 상대적으로 임상과 관련성이 적은 비효능 실험 분야의 연구가 다소 취약함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비효능 실험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생리활성실험 4편, 성분분석 3편, 품질기준과 포제 3편, 내·외부형태 분석 1편, 기타 연구 5편으로 총 16편에 불과하고, 품질기준이나 성분분석, 내·외부형태 분석연구 등은 본초관련 연구이므로 실제 방제의 제형이나 용법, 보관 등에 관한 연구, 처방성분의 표준화 실험연구 등은 미비한 형편이어서 방제 효능 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효능실험 논문 16편 중 14편이 2000년 이후 논문이므로 2000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 보인다. 종설논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142편 중 君臣佐使, 配伍, 18反19畏 등의 방제이론 분야는 17편에 불과하고, 병증이나 처방, 본초 효능과의 연계내용이 101편에 달하고 있어 실험논문과 마찬가지로 방제의 직접적인 치료효능과 관련된 문헌논문이 집중되어 있고, 다루고 있는 방제이론 분야조차 매우 한정적이어서 방제이론의 현대학적 재해석 및 다양한 적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방제이론 분야의 연구도 앞으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근거기반 치료의 큰 축인 효능 실험도 중요하지만 기반 학문으로서의

방제학의 역할 등을 생각해볼 때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연구주제별로는 병증, 처방, 본초, 효능, 서적에 대한 논문 수록 키워드가 전체 키워드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병증의 경우 최다빈도의 간독성을 비롯하여 당뇨, 천식, 뇌졸중, 아토피, 비만 순으로 다빈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문형태별로 다빈도 병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병증 키워드는 간독성으로 전체 9건 중 모두 실험논문의 키워드로 수록되었다. 2000년 이후 급증한 실험논문을 반영하듯 간독성 실험연구 역시 2000년 게재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관심이 이어져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 종설논문의 최다빈도 병증은 뇌졸중이었는데 문헌논문의 경우 전통적으로 한의학 치료의 비중이 높았던 중풍분야에 대한 고찰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Table 3에서 볼 수 있듯 2003년도 뇌졸중관련 문헌논문이 3편이 게재된 이후로, 당뇨, 천식 등 실험논문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문헌연구도 흐름을 같이 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병증에 대한 고찰로 문헌논문의 병증주제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질환 위주로 한의 방제의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감염병의 시대를 지나 만성성인 질환과 면역관련 질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런 질환들에 대해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한의방제 효능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방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병증연구의 경향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데 3번 이상 다빈도 처방 9개 중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四君子湯, 四物湯 등 최소 4개 이상이 補氣, 補血처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언급한 처방들이 방제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기본 처방들을 감안하더라도, 인체의 正氣를 증시하면서, 正氣가 약해져서 邪氣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한의학 기본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현대 면역 관련 연구로의 재해석 관점에서 補氣, 補血처방들이 충분히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빈도 병증과 연관지어 볼 때 간독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당뇨, 비만, 염증, 위암 등의 처방연구에서 補氣, 補血 처방 뿐만 아니라 병증의 한의학적 재해석을 통해 보다 다양한 처방과의 연계를 증명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들이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효능 역시 병증, 처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면역과 더불어 노화 연구 및 관련 질환의 관심분야로 주목받는 항산화, 라디칼제거효과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다빈도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방제학 전문학회지임을 고려해 볼 때 처방, 병증에 비해 본초는 상대적으로 특정 본초에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본초가 고르게 반영되었고 처방에 가감 본초 형태로 연구된 경우도 많았다. 실험논문의 경우에는 주로 특정병증에 대한 효능실험이 單味 혹은 처방가감 형태로 연구되었고, 종설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본초가 활용된 처방에 대한 고찰 형식의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서적 키워드는 실험논문에는 하나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종설논문의 경우 東醫寶鑑이 25개로 전체 서적키워드 42개중 59.53%에 해당하며 方藥合編을 東醫寶鑑계열의 처방으로 간주해 볼 때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에 게재된 종설논문들의 경우 東醫寶鑑 처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 한의학 서적인 東醫寶鑑 처방이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종설논문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실험연구 등을 통해 실험기반의 처방 병증 효능 연계의 東醫寶鑑 연구와 더불어, 四象처방

및 傷寒論 처방과 같이 다양한 서적에 대한 처방 연구도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병증, 처방, 본초, 효능, 서적을 제외한 기타 키워드의 4번 이상의 다빈도 순위를 보면 방제학회지의 특성상 방제(14), 처방(4), 한약(4)의 용어가 최다빈도를 나타냈고, 간독성(LPS), 면역관련(사이토카인)이나 항산화관련(NO, DPPH등), in vivo 효능실험(강제수영시험)등으로 병증, 처방, 효능 등의 다른 주제와의 관련성이 깊게 나타났다.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속의 윤용갑이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10인의 논문편수(59)가 전체 논문편수의 약 15.32%를 차지했다. 교신저자 최다 논문게재 역시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의 윤용갑이 3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10인의 논문편수(139)가 전체 논문편수의 약 36.10%를 차지하고 있었다.

1저자 소속기관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총 71건으로 최다빈도였으며 상위 10개 기관을 기준으로 8개 기관이 한의과대학이며 약학대학과 이례적으로 학교가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다빈도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되었다. 1저자와 교신저자는 논문게재 상위 저자순위가 다소 상이했으나, 교신저자의 소속기관의 경우 논문편수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1저자 소속기관의 상위 순위와 순위를 같이 하고 있었다. 약학대학의 경우 저자 소속이 정확하게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였으므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위10인이 대다수가 한의학과 관련 학교 소속으로, 모두 한의학계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참여 및 협동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전체 저자의 소속기관은 학교가 1060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학교 부속병원과 학교 연구소를 포함하면 전체 소속기관의 85.94 %에 달해 방제 관련 연구기관의 대다수가 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학교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한의과대학에 편중되어

있어서, 한의학계의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및 학교 외 국공립 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게재 논문의 저자 생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게재논문수의 단독, 공동저자를 조사하였다. Table 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단독저자비율은 17.92%, 공동저자비율은 82.08%로 공동저자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5인 저자 이상의 경우가 1999년도에 2편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연구특성상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실험논문 총 199편 중 78.39%인 156편이 2000년 이후 게재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 논문의 경우 공동저자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권 등⁷⁾의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한의학연구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초 실험 및 임상연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고 권 등은 밝히고 있다.

저자생산성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6과 같이 발표논문 편수에 따른 공동저자를 포함한 전체 저자들의 분포 및 저자수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저자생산성을 연구한 Lotka는 학술논문의 생산성에 대한 빈도분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n편의 논문을 기고한 저자의 수는 한편의 논문을 기고한 저자수의 약 $1/n^2$ 이며, 또한 모든 기고자 중에서 한편만 기고한 저자의 수는 약 60%가 된다"⁸⁾

특정모집단에 대하여 n편의 논문을 쓴 저자 수는 한편의 논문을 쓴 저자수를 논문편수로 나누면 된다는 공식은 한 편의 논문을 생산한 저자수를 알면 n편의 논문을 생산한 저자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저자생산성 및 정보유통의 규칙성에 관한 법칙으로 대부분 한국문헌을 분석한 연구들은 Lotka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⁹⁾.

Table 16을 살펴보면 한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

자수의 비율이 약 63.54%로, 국내 의학분야 32.14%¹⁰⁾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한의학분야의 경우 대한한의학회지 65.87%¹¹⁾와 함께 모든 기고자 중에서 한편만 기고한 저자수가 약60%가 된다는 Lotka의 학술논문 생산성 빈도분포에 근접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한의학회지의 저자생산성이 Lotka의 법칙과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으로 주로 논문형태, 연구방법, 연구주제, 저자에 관해 분석 고찰하였다. 참고로 방제학 연구 분야 및 대한한의학회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한학회학회지가 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후보에서 하루빨리 등재지로 되기 한 노력 또한 필요하겠다. 학술지 등재 요건 중 사이버출판여부, 논문게재율, 게재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자 기재 여부, 논문명, 저자명, 초록 및 주제어 수록여부, ISSN부여, 정시발행,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등의 요건은 물론이고 아직 게재논문수도 다른 학진 등재 후보지에 비해 부족한 편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대한 대한한의학회지학회지의 관심과 참여방안도 필요하다. 덧붙여 대한한의학회지와 비슷하거나 뒤늦은 발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2005년도에 학진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08년도에 학진 등재지로 선정된 대한약침학회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사상체질의학회지, 한방재활의과학회지의 학진 등재지 선정 전년도인 2007년 기준 학회지 발간 횟수 및 논문편수는 Table 17과 같다.

이제까지 살펴본 방제학 연구동향 및 현 연구의 개선점 등은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토대로 분석, 고찰한 내용이었다. 연구주제 분석의 경우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아시스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및 논문에서 자체 수록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연구주제 분석을 하였으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논문 키워드를 의미 연계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또 대한한의학회지가 방제학 전문학회지이기기는 하지만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학에서의 방제학의 중요성 및 역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방제는 다른 모든 한의 연구 분야에 필수적으로 응용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대한한의학회지의 게재된 논문만을 가지고 방제학 관련 연구의 현주소를 단언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 창간된 이후 대한한의학회지가 한의방제 전문학회지로서 한의학계에 꾸준히 기여해 왔고, 2006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그 역할에 박차를 기한 바 방제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동향 분석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1990년 창간호부터 2009년 제17권 2호까지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385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385편의 논문 중 원저논문 206편(53.51%), 종설논문143편(37.14%), 증례논문 35편(9.09%), 특별기고 1편으로 분류되었다. 원저 논문의 경우 실험논문이 199편(96.60%), 임상논문이 5편(2.43%), 기타2편이었다.
2. 실험논문은 크게 효능실험연구 183편(91%)과 비 효능실험논문 16건(19%)으로 분류되었다. 효능실험의 경우 in vivo 실험 114편(62.30%), in vitro 실험이 52편(28.42%), in vivo와 in vitro 가 혼용된 실험이 17편(9.29%)으로 in vivo 실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실험연구의 경우 병증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처방과 효능 실험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 효능실험논문의 경우에는 생리활성실험 4편, 성분분석 3편, 품질

- 기준과 포제 3편, 내·외부형태 분석 1편, 기타 연구 5편이었다.
3. 논문 키워드 분석 중 3번 이상 다빈도 병증용어 순위는 간독성(9), 당뇨(8), 천식(6), 뇌졸중(5), 아토피(4), 비만(3), 염증(3), 위암(3)순이었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병증은 간독성(9)이었고, 종설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병증은 뇌졸중(4)이었다. 실험, 종설 모두 상위 병증이 만성 성인질환 및 면역관련 질환에 집중되어 있었다.
 4. 논문 키워드 분석 중 3번 이상 다빈도 처방명 순위는, 補中益氣湯(10), 十全大補湯(6), 四君子湯(5), 黃連解毒湯(5), 定喘化痰降氣湯(4), 四物湯(3), 二妙散(3), 芍藥甘草湯(3), 芷貝散(3)순이었다. 실험논문과 종설논문 모두 최다빈도 처방은 補中益氣湯으로 補氣, 補血 관련 처방연구가 강세를 보였다.
 5. 논문 키워드 분석 중 3번 이상 다빈도 본초명 순위는, 부자(4), 갈근(3), 대조(3), 마황(3), 백지(3), 석고(3), 승마(3), 오미자(3), 음양곽(3), 행인(3), 황금(3) 순이었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본초는 음양곽(3)이었으며, 종설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본초는 부자(4)였다. 병증, 처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본초에의 집중보다는 다양한 본초가 고르게 반영되었다.
 6. 논문 키워드 분석 중 3번 이상 다빈도 효능용어는 면역(6), 항산화(6), 라디칼 제거 효과(4), 항염증효과(3), 혈액순환향상(3) 순이었다. 실험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효능은 항산화(6)이었고, 종설논문의 경우 최다빈도 효능은 혈액순환향상(3)이었는데, 다빈도 병증용어와 같은 맥락으로, 면역과 더불어 노화연구 및 관련 질환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다빈도 경향을 보였다.
 7. 논문 키워드 분석 중 서적은 총 42건으로 東醫寶鑑이 25건(59.5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方藥合編 6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번씩만 수록되고 있었고, 특히 종설논문에서 동의보감에 대

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8.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속의 윤용갑이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10인의 논문편수(59)가 전체 논문편수의 약 15.32%를 차지했다. 교신저자 최단 논문 게재 역시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의 윤용갑이 3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10인의 논문편수(139)가 전체 논문편수의 약 36.10%를 차지하고 있었다.
9. 1저자 및 교신저자 최다 소속기관은 원광대학교였으며 상위10개 기관 중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한약학과를 포함하여 모두 한의과대학으로 학계에 편중되어 논문이 발표되고 있었다. 전체 저자 소속기관 분포는 학교가 76.42%, 학교 부속병원 6.71%, 학교外연구소 5.55%, 개인한의원 4.67%, 학교연구소 2.81%, 학교外병원2.38%, 기타1.44%였다.
10. 단독저자비율은 17.92%, 공동저자비율은 82.08%로 저작은 공동저자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수의 비율이 약 63.54%로 Lotka의 학술논문 생산성 빈도분포에 근접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방제학회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제기초이론이나 정책, 교육 등의 연구 분야 및 연구자의 다양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강순수. 韓醫學의 展望과 우리의 役割. 大韓韓

- 醫學方劑學會誌. 2002;10(2):1-4.
2. 李鍾馨. 方劑學의 重要性.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1990;1:5-9.
 3. 서영민, 장규태, 김장현.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분석 및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4;18(1):247-72.
 4. 전통의학정보포털시스템 OASIS. <http://oasis.kiom.re.kr/portal/index.jsp>
 5. 韓醫科大學方劑學教室 共編著. 方劑學. 서울:永林社. 2003:27.
 6. 韓醫科大學方劑學教室 共編著. 方劑學. 서울:永林社. 2003:28.
 7. 권영규, 변성희, 서미령. 한의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大韓韓醫學會誌. 1999;20(1):30-42.
 8. 권영규, 변성희, 서미령. 한의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大韓韓醫學會誌. 1999;20(1):30-42.
 9. 권영규, 변성희, 서미령. 한의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大韓韓醫學會誌. 1999;20(1):30-42.
 10. 이영철. 의학논문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1.
 11. 권영규, 변성희, 서미령. 한의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大韓韓醫學會誌. 1999;20(1):30-42.